

국제광산업전시회, 한국전자전 이모저모 광·전자산업 발전상을 ‘한눈에’ 첨단 기술의 향연

첨단 기술관련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광산업과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자 기획된 국제광산업전시회와 한국전자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광산업전시회는 올해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아·태광통신콘퍼런스를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광산업 관련 신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는 콘퍼런스를 진행하며 관심을 모았다.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에는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와 중국의 하이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자제품을 총 망라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한편, 전자전은 단독 전시회로서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반도체산업대전, 정보디스플레이전과 통합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취재/박지연 기자

제7회 국제광산업전시회

아·태광통신콘퍼런스 유치 성공, 다수의 광통신 신기술 주제 발표

21세기 최첨단산업으로 꼽히는 광산업과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 전시회인 ‘2007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산자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주관하며 한국광기술원·한국광학회·전자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3개 국 12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관람객 수는 총 1만3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통신 부품 등 광산업 전문분야를 총망라한 많은 품목이 전시됐다. 특히 유비쿼터스사회를 조망해볼 수 있는 FTTH 체험관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조명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 체험관도 설치됨으로써 일반인에게 빛이 응용되는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내업체로는 삼성전자가 광섬유와 광케이블, 광 점퍼 코드 등 20년이 넘는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광통신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또 초고속 인터넷과 화상전화, 고

화질 인터넷 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FTTH 솔루션도 출품했다. KT는 지난 7월에 출시된 메가TV를 비롯한 인터넷(IP)미디어, 비즈메카 아이캠, 인터넷 전화(VoIP) 등 다양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을 전시했다.

LG이노텍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튜너, 광 디스크 드라이브용 모터, 모듈 레이저를 비롯해 LED 및 정밀실장기술을 응용한 초소형 복합모듈 등을 전시했다.

이오테크닉스는 파이버(Fiber) 레이저 마킹기와 파워미터, 빔 프로파일러 등 광학부품을 선보였다.

동우옵트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LED/LD 연구·개발(R&D) 및 생산에 적용되는 광여기 발광 측정시스템을 전시했고, 피피아이는 산자부로부터 우수품질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을 받은 광 파워분배기(스플리터)와 파장분할다중화기(AWG) 등을 전시했다.

해외업체로는 중국 광산업집적화단지인 무한광밸리에서 12개 부스 규모로 공동관을 구성해 중국의 레이저관련 광기술을 선보였다. 또 세계적인 독일 유리 생산업체인 독일 쇼트와 일본 광통신 첨단부품 개발업체 OCJ 등 해외 광 관련 업체에서도 참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전시회 기간 중에는 국제광기술콘퍼런스와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 발표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

사도 동시에 개최됐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아·태광통신콘퍼런스를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27개국의 광산업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친 662건의 국제 광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해 발표하는 콘퍼런스가 4일부터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무역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초청된 200여 명에 달하는 광산업분야 전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열려 업체에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새롭게 신설한 광산업 신기술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 2007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LG이노텍 부수를 둘러보는 내외빈들.



▶ 9월 4일 '2007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식 행사중 테이프 커팅식 광경.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내 광산업체의 제품 및 기술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세계 우수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8회 한국전자전

올해 단독 전시회를 끝으로 2008년부터 전자산업 대전으로 확대

한국전자전이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에 따르면 전시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 5800여 명을 포함해 21만 2000여 명이 관람하고 24억 3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풀HD TV와 홈시어터, 듀얼 플레이어, 휴대폰, 초슬림 노트북PC 등을 선보여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가전과 모바일이란 코드를 내세운 삼성 및 LG와는 달리 소니는 “엔터테인먼트”를 이번 전시회의 메인 테마로 삼았다. 특히 6년 만에 전자전에 참가한 소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11인치 OLED TV,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LCD TV 등을 전시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쳤다.

그밖에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샤프와 중국 하이얼 등이 첨단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하이얼은 한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32~52인치급의 다양한 LCD TV와 노트북, 그리고 몇몇 가전 제품들을 출품했다.

금번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업체중 중국 IT업체가 100여 개로 가장 많아 중국 IT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 부대행사로 LG전자 이희국 사장,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크 맥닐리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소니와 하이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밖에 글로벌 바이어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와 중국·베트남·러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 초청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등이 개최돼 어느 때보다 활발한 비즈니스가 진행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용범 LG전자 부사장과 최정혁 삼성전자 상무가 '2007 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산업훈장과 산업

포장을 받았다. '제12회 전자부품 기술대상' 제품부문에서는 LG전자의 슈퍼블루 플레이어용 광픽업 및 로더(대기업 부문)와 넥스트칩의 CCD카메라 영상신호 처리칩(중소기업 부문)이 각각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디지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부품기술대상에서는 LG전자의 슈퍼블루 플레이어용 광픽업 및 로더, 넥스트칩의 CCD 카메라 영상신호 처리칩이 각각 대기업, 중소기업 대통령상을 받는 등 총 1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돼 수상을 했다.

제품부문 금상(국무총리상)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스마트폰용 멀티미디어 모바일 CPU와 파트론의 비정방형 유전체 블록타입의 GPS 능동 안테나가 수상제품으로 꼽혔다. 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대기업에서 LG필립스LCD의 TFT LCD구동 멀티채널 드라이브IC 등 4개가,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파아라에텍의 백색 발광다이오드 칩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전자전은 내년부터 반도체산업대전, 정보디스플레이전과 통합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는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정보가전 제품들을 대거 출품했다. PDP/LCD TV와 홈시어터시스템, 개인 휴대용 MP3와 휴대폰, UMPC 등을 대거 전시·시연했다.



▶ 삼성전자 휴대폰 코너에는 작년 'DMB 테마'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HSDPA' 대중화의 기치를 올리고 있었다.



▶ 6년만에 전자전에 참가한 소니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자사의 OLED TV를 전격 출품하고 한국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폈다.

제 10회 PGC 北海道 대회 성황리에 치러져

일본 북해도에서 지난 7월 31일~8월 2일까지 3일간 제 10회 PGC 北海道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20대~40대의 혈기 왕성한 일본 사진 단체의 차세대 주자들이 주축이 되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사진계 행사로서 일본의 사진계를 리드해가고 있다. 대회 기간인 3일 동안 각종 사진 세미나, 주제발표, 토론, 화합의 잔치,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져 공부도 하고 사진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현재 PGC회원은 800명이 넘으며 나이 제한이 있어서 50이 넘으면 OB회원으로 넘어가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광호 한국PGC회장(롯데스튜디오 대표)이 올해로 5번째, 10년간 이 대회에 참가했다.

김광호 회장은 “일본에서도 북해도는 멀리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참가하기가 어려운데도 35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긴밀한 관계와 사진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개최지 유바리市는 일본 지자체 중에서 재정이 바닥난 상태로 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올해 PGC가 이곳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유바리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카메라박물관, 과천 대공원 근처로 이전 및 신축 개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카메라 전문 박물관인 한국카메라박물관(관장·김종세, www.kcpm.or.kr)이 지난 9월 12일 서울 신림동에서 과천 대공원역 근처로 이전, 신축 개관했다.

지상 3층 건물로 이뤄진 공간의 1층에는 특별전시실을 비롯하여, 2층에는 상설전시실을, 3층에는 수장고, 자료실 등을, 또한 사진갤러리와 강당을 갖추고 있다. 지하에 꾸며진 사진갤러리에는 약 60여 평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카메라 박물관은 김종세 관장이 평생 수집한 카메라를 모아 만든 곳으로, 그가 30여년에 걸쳐 수집한 3천여 대의 카메라, 5천여 개의 렌즈, 각종 액세서리와 확대기, 필터, 다게레오타입 필름까지 총 1만 5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이 박물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규모 면에서 손꼽히고 있다.



▶ 제 10회 PGC 北海道 대회에서 기조 환영사를 하는 김광호 한국PGC 회장(롯데스튜디오 대표).



▶ 과천 대공원역 근처로 이전, 신축 개관한 카메라박물관 전경.



▶ 대회 기간 중에 열렸던 세미나 광경.



▶ 다양한 카메라등이 전시돼 있는 전시실.